

광주 남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 침해 등 살핀다

12월 초까지 관내 27곳 대상 지도·점검 실시

성폭력 등 사례 발견시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광주 남구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상황 전반을 살피기 위해 다음 달 초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

3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27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운영실태 지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 4일까지 진행된다.

남구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투명성과 동절기 대비 시설안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비롯해 후원금,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물품 및 공사 관련 계약, 자산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도 살펴보고 있다.

점검 결과 인권 침해나 성폭력, 공금 유용 및 횡령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제재기준

의 최상위 범위를 적용해 종사자 중단을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반·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개선 요구 사항과 처분 기준을 통보해 후속

조치 실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희기자

김정숙 여사, 맹학교 찾아 학생들 격려

11월4일 점자의날 기념 학생들과 점자대회 참여

건넌 카드에는 점자로 “꿈 닿지 못하는 곳 없다”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열린 94주년 점자의 날 기념 2020학년도 점자대회 '손끝으로 보는 세상'에서 점자찍기 게임 체험후 박수를 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를 찾아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격려했다.

서울맹학교는 1913년 개교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학교다. 김 여사는 오는 4일 제94주년 점자의날을 기념해 학교를 찾았다.

김 여사는 이날 점자의날 기념 점자대회에 참여했다. 6개의 점으로 이뤄진 점자체계를 활용한 퀴즈 등을 초등부 학생들과 함께 풀었다.

김 여사는 “손끝으로 세상을 보게하는 여섯개의 점은 시각장애인들과 세상을 잇는 아름다운

점”이라며 “시각 장애인들의 꿈이 장애물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학생들에게 점자 메시지가 적힌 카드와 보온병을 선물했다.

카드에는 졸업생이 학교 담장 벽화에 남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길을 볼 때 난 마음으로 세계를 본다’는 말에 이어 ‘꿈이 닿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말이 점자로 적혔다.

김 여사는 지난해 개최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수어(手語)로 전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점자대회 후 역사관을 둘러본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의 학습과 돌봄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서울맹학교 김은주 교장, 배인용 운영위원장과 김정숙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영암군,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운영

고위험군 40세이상 230명

영암군은 저소득층 간암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간암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간암 고위험군 40세이상 주민 230명을 우선 선정하며 검진 위탁기관인 영암병원에서 B형간염(항원, 항체), C형간염(항체) 혈액검사를 11월 13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B형, C형간염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간암 발생의 가장 주요한 대표적 위험인자로서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 B형, C형간염 혈액검사로 유소견자 조기발견, 치료 등 간염인지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정밀검사를 통해 간염진단 및 검사결과 전문의 상담, 유소견자 사후관리(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등 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암군 보건소 관계자는 “간암은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중요하며,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간경변증, 알콜성 간질환을 가진 환자는 주기적인 외래 진료 및 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추적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장흥 대덕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집수리 봉사

장흥군 대덕읍(읍장 김철호)은 지난 10월 29일 수급자 및 저소득층 4가구의 주택 수리를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겨울철 따뜻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루 단열 매트 설치,벽지 도배 등으로 진행됐다.

화장실 전장을 수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화장실 내에 손잡이도 설치해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했다.

대덕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사회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복지안전망으로,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평소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하던 중 민관이 함께 협력해 취약계

층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공감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구성하고 활동 보폭을 넓히게 됐다.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일상생활 불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다.

김철호 대덕읍장은 “복지기동대가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주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시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